

몽골의 게세르 칸 (ᠭᠡᠰᠡᠷ ᠬᠠᠨ Geser Qan) 과 한국의 거슬한(居瑟邯)

B.Sumiyabaatar(Mongolia)

현재 한국인의 일부가 신라(新羅 Xīn-luó)의 후예(後裔)이다. 신라인들은 한국 및 중국의 많은 사료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슬한(居瑟邯)의 여예(餘裔)들이다.

한국의 거슬한(居瑟邯)과 몽골 - 티벳(ᠲᠦᠪᠡᠳ Töbed)의 게세르 칸(ᠭᠡᠰᠡᠷ ᠬᠠᠨ Geser Qan · ᠭᠡᠵᠢᠷ Kejar)과 상호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우연성(偶然性)인지? 하여튼 이것이 몽골 - 티벳의 Geser과 나아가서 한국의 거슬한(居瑟邯)을 연구하는 데에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회피(回避)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 범위 내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몽골 석학(碩學) 체.담딩수렁 (ᠴᠡ ᠳᠠᠮᠳᠢᠩ ᠰᠦᠷᠦᠨ Ц.Дамдинсүрэн) 님이 “게세르 서사시의 세 가지 특징” (Гэсэрийн туужийн гурван шинж. Улаанбаатар.1956.29-p тал)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7-13세기에 해당하는 중국과 티벳 사료들을 분석 연구한 결과 Geser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그 연대는 우리와 다르다.

한국과 중국의 사서(史書)에 거슬한(居瑟邯)이 역사적 인물로 등장(登場)하고 있으며 그의 출생(出生)과 즉위(卽位) 연도(年度)에 대해 뚜렷이 지적(指摘)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거슬한(居瑟邯 / 거서간 居西干 / 거세간 居世干)이 전한(前漢 Qián-hàn)의 선호제(孝宣帝) 오봉(五鳳)원년 4월 병진일(간혹 정월 15일) 13세로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始祖姓朴氏諱赫居世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 一曰正月十五日卽位號居西干時年十三國號徐那伐). 전한(前漢)의 선제(宣帝)는 기원전 73-48년까지 통치했고 오봉(五鳳)원년(元年)이 기원전 57년이다. 이 때 거슬한(居瑟邯)이 13세이었다면 그의 출생 년도가 기원전 70년이 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거서간(居西干)이 재위 61년 3월 봄 하늘로 올라 갔다 ⇨ (...六十一年春月居西干升遐”, “...理國 六十一年王升于天...)고 쓰고 있으며 이것은 서기 4년이다.

이번에 필자가 몽골-티벳(ᠲᠦᠪᠡᠳ Töbed)의 게세르 칸(ᠭᠡᠰᠡᠷ ᠬᠠᠨ Geser Qan · ᠭᠡᠵᠢᠷ Kejar)과 한국의 거슬한(居瑟邯)과의 상호 관계 문제를 연구 대상(研究對象)으로 삼았다.

첫째. 몽골 - 티벳의 Geser Qan과 한국의 거슬한(居瑟邯)의 음성적 구조가 동일하다.

Geser "게세르"란 인명의 한국어와 중국어(고대, 현대) 발음을 도표로 보여 들이면 ↓

	한국어 발음	중국어 발음	
		현대	고대 또는 방언
居世	Köse	Jushi	Ḳiwošiai, Kūši, Kūšai
居西	Kösö	Juxi	Ḳiwošiei, Kūsi, Kūšai
居瑟	Kösil, Kösir	Juse	Ḳiwošet, Kūsə, Kūšət 이다.

居世를 赫居世라고 하며 현대 중국어로 Hejushi, 한국어로 혁거세로 읽는다. 赫은 “붉은, 타오르는, 번영하는, 유명 한”을 뜻하고, 뒤의 居世는 고유명사이다. 중국고대음과 한국어 발음이 Geser 에 아주 가깝다. 마감 “-r” 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고대 중국어와 광둥어 발음의 끝 소리인 -siai 음절이 “-r”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Kösil / Kösir 라고 쓴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居瑟이라고 나오며 瑟의 한국어 발음이 -sül / -sir 이다. 이 밖에 많은 경우에 居世, 居西, 居瑟이 干, 邯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 “간”, “한”과 함께 (거서간, 거세간, 거슬한) 나오는 데 그것은 몽골과 터키계 관직인 «칸 Qan»과 일치한다.

둘째. 거슬한(居瑟邯)이 국가를 세운 연도가 "대이동 (大移動)"의 시기와 일치

거슬한(居瑟邯)이 처음 국가를 세운 기원 전 57년이 "대이동 (大移動)"의 시기이며 이때 흉노가 한제국과의 싸움에서 패전(敗戰)함으로써 북과 남으로 나뉘었다. 남흉노가 한제국의 세력 밑에 속하게 되고 북흉노의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선비에 의해 패배(敗北) 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 아시아에서 강력한 흉노의 지배가 무너지고 민족들이 갈라져 대이동을 시작했다. 동 흉노에 서기 전 50 년대에 Gusi라는 이름을 가진 부장이 있었는데 기원전 58 년에 중앙 흉노에 대항(對抗)해 반란(反亂)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4-5 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로인가 살아졌다. 다음해 서기 전 57년에 한반도에 거세간이란 사람이 국가를 세웠다.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하며 연도가 일년의 차이 있고 지역상 가깝기에 이상 역사적 사실들을 결코 결부(結付)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학자들이 사료를 검토(檢討)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期待)하여 전한서(前漢書) 기록과 러시아어 번역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

明年鳥桓擊匈奴東邊姑夕王頗得人民單于怒姑夕王恐即與鳥禪葦反左地貴人共立稽侯
獬爲 呼韓邪單于發左地兵四五萬人西擊撻衍月句鞬單于至姑且水北 [師古曰且音子余友]
未戰撻衍月句鞬單于兵敗走使人報其弟右賢王曰匈奴共攻我若肯發兵助我乎。

브.에스.다스킨 (B.C.Таскин)씨의 러시아어 번역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58 г. до н.э.) ухуани напали на (владения) князя Г у с и,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на восточных окраинах сюннуских земель, и захватили много народа, что разгневало шаньюя. Напуганный князь Г у с и вместе с Учаньму и знатными лицами левых земель возвел на престол под именем шаньюя Хуханье Цзихоушаня, а затем отправил из восточных земель 40 или 50 тыс. воинов, которые выступили на запад и напали на шаньюя Уяньцзюйди и дошли до местности к северу от реки Гуцзюйшуй.

Еще до начала сражения войска шаньюя Уяньцзюйди обратились в бегств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н послал гонца к своему младшему брату, занимавшему пост правого сянь-вана,сказать: “Сюнну, объединившись, напали на меня, не согласишься ли ты прислать мне на помощь войска?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Сюнну. Москва. 1973.стр.32)
엔.야. 비추린 (Н.Я.Бичурин)씨의 러시아어 번역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58 г. до н.э.) Ухуаньцы на восточной границе напали на Г у с и - князя и увели много народу. Г у с и - князь, для избежания опасности, пристал к Ушаньму (небольшое владение, лежавшее между владениями Усунь и Кангюй) и старейшинам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и с общего с ними согласия на престол возвел Гихэушяня под названием Хуханье-Шаньюя, потом собрав от 40 000 до 50 000 войска, пошел на запад на Уянь-гюйди Шаньюя. Когда ж пришел на северную

сторону реки Гуцзюй, то еще до сражения войско Уянь-гюйди Шаньюя обратилось в бегство. Он послал гонца к младшему своему брату, Западному Чжуки князю с известием, что Хунны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ми силами напали на него, и просил его придти с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на помощь ему (Н.Я.Бичурин.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М.,1950.стр.86)

또 엘.엔.구밀료위 (Л.Н.Гумилев)씨가 이상 Gusi 왕에 대하여 쓰기를: " 58 г. до н.э.

Опало Гуси-князя; Набег ухуаней на род Г у с и " ("Хунну".М.,1960. стр.264.)

"Г у с и - хуннский род на востоке, около Ухуани (Ухуань-монгольская народность в южной маньчжурии во 2 веке до н.э. - 3 в н.э.; потомки Дунху) ("Хунну".М.,1960. стр.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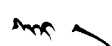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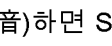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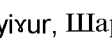
세째. 거슬한(居瑟邯)이 세운 나라 이름이 Syunnu (Hunnu)와 통합

거세 (居世)가 기원전 57 년에 즉위(即位)하고 호를 거서간(居西干)이라 하고 국가에 서나벌 (徐那伐)이란 이름을 주었다 ⇨ (...居世...即位號居西干...國號徐那伐).



	한국어 발음	중국어 발음	
		현대	고대 또는 방언
徐	sö	xù	zia, ʃe, ʃə
那	na	nà, nei	'ña
伐	pöl, böi	fa	b'iwət, fa, fāt, fət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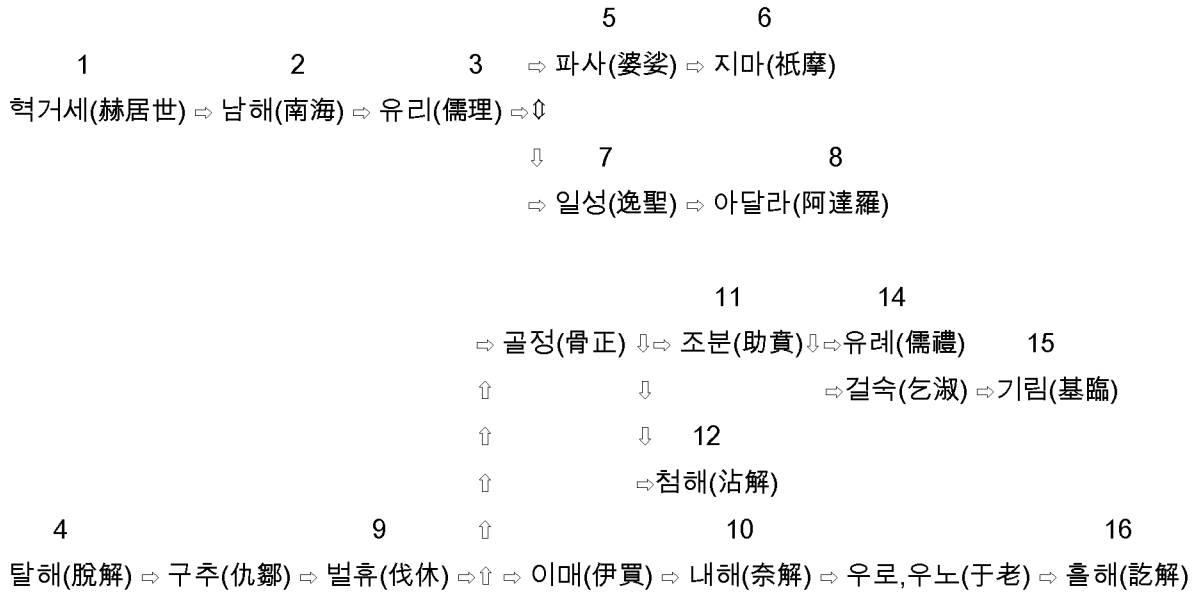
徐가 “조용한, 평화로운”의 뜻, 那 는 “어찌”, 伐이 “자르다”의 뜻이며 모아 읽으려면 아무런 뚜렷한 개념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은 거서간 (居西干)에 의해 세워진 나라 이름의 한자 음역임이 틀림 없다. 위에 열거(列擧)된 두 글자를 연음(連音)해 발음하면 흉노 Syunnu, Hunnu에 아주 근사(近似)하게 들린다.

네째. 거슬한(居瑟邯) 후예가 자신들을 “Sira”, “Sara”라고 불렀다.

한자로 新羅라 썼고, 한국어 발음이 “신라 Sinla”이고, 중국어 발음이 Xīn-luó 이다.그러나 “新羅 신라”란 표기는 비교적 후대의 것이고 그 전에는 “斯羅 Sī-luó, 사라”, “斯盧 Sī-lú, 사로”로 쓰였다. 羅 의 현대 발음이 luó 이나 전에는 la, lo 였고 회화어에서 두 모음 사이에 ra, ro 로 발음했었다. 또 羅 의 일본어 발음이 ra 이며 현대까지 유행했던 한국의 “무단 꽃 붉게 피는 시라 무렌 찻집... “(시라 무렌이 몽골어의  Шар мөрөн, 노란 강, 황해 이다) 노래 등을 총 고려(考慮)하여 이상을 연음(連音)하면 Sira, Siro, Siluo, Silo, Sara가 되고 몽골어의  (Sir-a, Шар),  (Sir-a uyirur, Шар уйгур)와 결부(結付)시킬 가망성(可塑性)이 호출(呼出)된다.

다섯째. 거슬한(居瑟邯) 족보에서의 중앙아시아적 요소

한국의 거슬한(居瑟邯)이 중앙아시아에 기원(起源)을 둔 사실을 그의 족보(族譜, zú-pǔ, )  Uy-un bičig)가 신증(信證)해 주고 있다. 이제 혁거세(赫居世) 족보(머리 부분만)를 얼핏 살펴 보기로 한다 ⇩



혁거세(赫居世, 기원전 57-기원 3 년) ⇨	남해(南海, 4-23년) ⇨	유리(儒理, 24-56년) ⇨
탈해(脫解, 57-79년)	파사(婆娑, 80-111년)	지마(祇摩, 112-33년)
일성(逸聖)	아달라(阿達羅, 154-183년)	벌휴(伐休, 184-195년)
내해(奈解, 196-229년)	조분(助賁, 230-246년)	침해(沾解, 247-261년),
미추(味鄒, 262-283년)	유레(儒禮, 284-297년)	기림(基臨, 298-309년)
흘해(訖解, 310-355년)	내물 (奈勿, 356-401년)	실성(402-416년)
눌지(訥祗, 417-457년)	자비(慈悲, 457-478년)	소지(炤知, 479-499년)

지증(智證, 500-513년) 법흥(法興, 514-539년)

상기(上記) 처럼 혁거세(赫居世)의 족보가 남자 인명(人名)의 집합(集命)일뿐더러 언어 연구대상인 신라 인명의 음성학적 및 형태부적 구조의 바탕 자료를 제공(提供)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신라

이름이 성이 없고, 대부분 두 음절로 구성된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몽골(몽골비사에서의 인명), 만주, 터키 이름, 그리고 흉노를 통하여 구라파까지 분포(分布)된 중앙아시아 인명을 상기(想起)시키는 이름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달라(阿達羅, Атилла), 유리(儒理, Юри); 구추(仇鄒, Күчү) 미추(味鄒, Мичү); 눌지(訥祗, Нүлжи) 소지(炤知, Сожи), 벌휴(伐休) 등 등이며 다음 “여섯째”에서 계속됨.

여섯째. 거슬한(居瑟邯) 국가의 언어에 중앙 아시아 언어 요소가 있다.

➤• 최우선 중앙 아시아 언어란 개념에 몽골어, 터키(돌궐어)계 언어를 포함(包含)시켜 사료(史料)에 기록된 인명, 지명, 종족명과 일부 형태부를 응시(凝視)해 보자.

혁거세(赫居世)가 세운 나라의 인명중 -해(解 xiè)로 끝난 이름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기원 4 년 부터 355 년까지 왕위(王位)에 있었던 사람들 중 5 명의 이름에 이상 -해(解 xiè)가 붙어 있다.

이것은 몽골과 터키어(돌궐어)의 인명, 종족명에 들어 가는 -qai, -hai, -хай 형태부와 일치한다 ↓

남해(南海, намХАЙ)

탈해(脫解, тарХАЙ)

내해(奈解, найХАЙ)

첨해(沾解, чхэмХЭЙ)

홀해(訖解, хылХЭЙ) 이다.

➤• 居西干 과 蕪矩內的 뜻 규명(糾明)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거서간은 진어(辰語)로 왕 또는 귀인의 칭호" 라고 해석(解釋)하고 있다 ⇨


(居西干辰言王或云呼人之稱). 그리고 "赫居世王或作蕪矩内王"이란 기록도 있다. 여기서 蕪矩内王

란 뒷부분이 주목(注目)할 만 하다. 蕪矩內的 현대 중국어 발음이 fú-jǔ-nèi이나 고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발음으로는 fú-kiū-nèi 이며 고대 한국 및 중국 사가들이 이것을 중국 단어가


아니고 진어(辰語) 단어의 한자 음역(音譯)으로 보고 그 뜻을 辰言光明理世也라고 해석하고 있다.


허나 필자가 "赫居世王或作蕪矩内王"과 呼人之稱 이란 기사의 역사·언어학적 고찰 분석에 입각

(立脚)하여 蕪矩内는 몽골어의  бүхний, бүхний (전체의, 모두의, 만물의)란 단어와 서로 의미와

음성학적으로 상통(相通)한다고 추리(推理)하고 있다. 居西干辰言王或云呼人之稱 과 赫居世王

或作蕪矩内王 이란 한국 기록이, 세계에서 분포(分佈)된 많은 " 전체의왕(지배자), 모두의 왕 (지배자),

만물 지배자"들의 면모를 알게 해주었다. 즉 몽골의  Geser Qan, Гэсэр хан, 한국의

거서간(居西干), 거슬한(居瑟邯), 티벳( Töbed)의  Kejar), 불란서의 ...Цезарь, 독일의 ...

Кайзер, 이란의 ...Касур, 페르시아의 ... Герсасна, 러시아의 Царь 의 내용이 같으며 고대 한국어의

하나로서의 진어(辰言)가 그 본 뜻을 우리에게 보존(保存) 전달(傳達)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상

문제 풀이의 바탕 및 배경적 증거가 다음 장으로 넘어 간다.

➤• 신라어의 "滄찬"과 몽골어의 -tan, -ten 형태부

신라의 17 개 관직명을 구조상 분석해 보면 "滄찬[cān,sūn]"이 들어간 관직명이 9 개가 있다 ↓

伊伐滄 이벌찬 [yī-fá,fā-cān,sūn]

伊滄 이찬 [yī-cān,sūn]

迺滄 잡찬 [yǎng-cān,sūn]

波珍滄 파진찬 [bō-zhēn-cān,sū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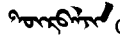
大阿滄 대아찬 [dà,dài-ā,à,ē--cān,sūn]

阿滄 아찬 [ā,à,ē-cān,sūn]

一士滄 일사찬 [yī-shì-cān,sūn]

沙滄 사찬 [shā,shà-cān,sūn]



級伐滄 지벌찬 [ji-fá,fā-cān,sūn] 이다.

역사음성학적으로 재귀(再歸)하면 "ts,ch" 의 전신(前身)이 " t, t' "임을 한 언어 뿐만 아니라 같은 계통의 언어들 그리고 차용어에(예: 茶 chá~ 차~tea)까지 널리 퍼져 존재하는 어음 현상이라고 세계 음성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의 한국, 일본, 월남 발음에서 그 실례(實例)를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으며 (예: 天 tiān, 천; 帖 tiē,tié,tiě, 첩; 田 tián, 전; 丁 dīng, 정...) 그리고 몽골과 거란어 단어를 한자로 전사한 사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란 여자의 Tolin, 托林란 이름을 "초린" 이라고 전사한 것이 있고 몽골어의  dörbeljin, дөрвөлжин이란 자명(字名)과 책 이름을 帖月眞 첩월진 [tiē,tié,tiě-yuè-zhēn], 帖兒月眞 첩아월진 [tiē,tié,tiě-ér-yuè-zhēn] 이라고 전사한 한국기록이 있다.

아무리 시기와 인용 단어의 현존 의미상 차이는 있으나 "滄 찬" 의 고형(古形)과 형태부적 뜻이 몽골어의 -tan, -ten 형태부에 보존되었다고 필자고 보고 있으며 그 실례를 몽골비사에서 발취(拔萃)하여 소개(紹介)하고자 한다 ↓

- 把阿秃兒壇  bayaturtan, баатартан(4-141-11)
- 木中舍里壇  muqalitan, мухалитан(5-156-5)
- 太子壇  tayijitan, тайжтан (5-152-28)
- 赤舌來壇  čirayitan, царайтан (1-55-7)
- 幹字黑壇  obuytan, овогтан(11-263-4)
- 額舌兒迭木楊田  erdemüdten, эрдмэдтэн (4-139-7)
- 額勒赤田  elčiten, элчтэн (10-245-8)
- 客失克田  kesigten, хэшигтэн (7-187-4)
- 格舌兒田  gerten, гэртэн (12-266-2)
- 客列田  keleten, хэлтэн (10-245-1) 등등이다.

➤• 신라어의 角干 각간, 伊伐滄 이벌찬, 舒不部 \ 舒弗部 서불한, 舒發翰 서발한

한자 전사(轉寫)가 可汗, 𠵼슴罕, 角干; 邯, 翰, 干, 汗 建 등 등 약간 다르긴 하나 "  qayan хаан"과 "  qan, хан"이란 칭호(稱號 chēng, chèn-hào, háo)가 몽골, 돌궐 그리고 신라에 대한 사료에 빈번히 나오며

王 東 土 得 君 之 子 孫 三 建 必 矣
 왕 동 토 득 군 지 자 손 삼 건 필 의

wáng,wàng-dōng-tǔ-dé,dé,děi-jūn-zhī-zǐ,zi-sūn-sān-jiàn-bì-yǐ

동방의 임금이 되려면 <건> 자 붙은 이름으로 자손까지 3 대를 거쳐야 한다(고려사 1-4,1-50)는 역사적 기록까지 있다. 이상 칭호의 분포를 보여 드리면

Жоужань (Нирун)에

- 4 세기말. Цюдоуфа кэхань (-, Шэлунь 社論 Shè-lún)
 丘豆伐 qiū-dòu-fá,fā 可汗 kě,kè-hán,hàn
- 410 년. Айкугай кэхань
 諷苦蓋 Ái-kǔ-gài, gě 可汗 kě,kè-hán,hàn
 (Вэйшоу.Вэй улсын бичиг 魏書 Wèi-shū 103,1a-22a. Хулуй 斛律 Hú-là 이다)
- ≈420 년. Моуханьгэшэнгай кэхань (-, Датань 大檀 dà,dà-tán)
 牟汗紇升蓋 Móu,mù-hán,hàn-gē,hé-shēng-gài,gě 可汗 kě,kè-hán,hàn
- ≈430 년. Чилянь кэхань (-, Ути 吳提 Wú-tí,dī)

- 敕連 cè-lián 可汗 kě,kè-hán,hàn
 ≈444 년 Чу кэхань (-", Түхэчжэнь, Tǔ-hè-zhēn)
 處 Chù,chǔ 可汗 kě,kè-hán,hàn
 ≈464 년 Шоулобучжэнь кэхань (-", Юйчэн 予成 Yú,yǔ-chéng)
 受羅部貞 Shòu-luó-bù-zhēn 可汗 kě,kè-hán,hàn
 ≈485 년 Фугудунь кэхань (-", Доулунь 豆輪 Dòu-lún)
 伏古敦 Fú-gǔ-dūn,duì 可汗 kě,kè-hán,hàn
 ≈500 년 Хоуцифудай кучжэ кэхань (-", Нагай 那蓋 nà,nā,nǎ,nǎi-gài,gě)
 候其伏代 庫者 hòu,hóu-qí,jī-fú-dài kù-zhě 可汗 kě,kè-hán,hàn
 ≈500 년 Тахань кэхань (-", Футу 伏圖 Fú-tú)
 他汗 tā-hán,hàn 可汗 kě,kè-hán,hàn
 ≈510 년 Доулофубадоуфа кэхань (-", Чоуну 醜奴 Chǒu-nú)
 豆羅伏跋豆伐 Dòu-luó-fú-bá-dòu-fá,fā 可汗 kě,kè-hán,hàn
 ≈520 년 Миоукэшэгоу кэхань (-", Поломынь 婆羅門 Pó-luó-mén)
 彌偶可社句 Mí-ǒu-kě,kè-shè-jù,gōu 可汗 kě,kè-hán,hàn
 ≈526 년 Чилянь тоубиндоуфа кэхань (-", Анагуй 阿那衰 ā,ā,e-nà,nā,nǎ,nǎi-huī)
 敕連 cè-lián 頭兵豆伐 tóu,tóu-bīng-dòu-fá,fā 可汗 kě,kè-hán,hàn
 Цифу кэхань тодо моко
 乞伏 Qǐ-fú 可汗 kě,kè-hán,hàn (Фан Сюаньлин. Цзиньшоу 房玄齡 Fáng-xuán-líng.
 晉書 Jìn-shū, Жин улсын бичиг.125.1a-9a.) 있었으며,

Эртний солонгосын Силла(신라 新羅 Xīn-luó)에.

8세기 각간 Qaγγan 角干 jiǎo,jué-gān,gān.

豆恩拈 角干 Dòu-ēn-diàn jiǎo,jué-gān,gān 두은점 각간.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 高麗史고려사 1-156) 있었으며,

Түрэгт дүлгелэ

553-572 년 Мухань кэхань (Линху Дэфэнь.Чжоу улсын бичиг. 周書 Zhōu-shū . 50.8a-106)
 木汗 Mù-hán,hàn 可汗 kě,kè-hán,hàn

≈712-716 년 Qaγan (Тоньюкугийн хөшөөний бичээс 툐유국 비석)

732 년 Qaγan (Куль-Тегиний хөшөөний бичээс 쿨테긴 비석)

11세기 Хаγan (Махмуд Кашгар 1072-1074 "Диванү лугат-ит-турк "Ш,157)

≈12-13세기 Хаγan (Ташкент хотод хадгалагдан буй араб үсгээрхи дурсгал 타스켄트시에 소장되어 있는 아라비아어 유물)

13세기 Qaγan (Огуз-хаганы домог. Парисийн Үндэсний номын санд огузс 각간 전설.파리시 도서관)

Altun qaγan (Древнетюркский словарь – 405 고대돌궐어 사전)

Aj qaγan (- " -) ⇨ Baz qaγan (- " -) Bilgä qaγan (- " -)

Bögü qaγan (- " -) ⇨ Bökli (- " -) qaγan Bumīn qaγan(- " -)

Eltäriš qaγan (- " -) ⇨ Inäl qaγan (- " -) Kül Bilgä qaγan (- " -)

Masar qaγan (- " -) ⇨ Oγuz qaγan (- " -) Qaraγan qaγan (- " -)

Urum qaγan (- " -) 있었으며,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гардаг “Хаган” гэдэг үгс 몽골비사에 나오는 𑰃𑰆𑰄𑰚“Хаган”:

俺巴孩 𑰃𑰆𑰄𑰚 Ambaγai qaγan 52-32b(1103)

合不勒 𑰃𑰆𑰄𑰚 Qabul qaγan 48-30a (1021)

𑰃忽圖刺 𑰃𑰆𑰄𑰚 Qotula qaγan 48-30a (1024)

成吉思 𑰃𑰆𑰄𑰚 Činggis qaγan 59-40b(1226)

王 𑰃𑰆𑰄𑰚 Ong qaγan/Wang qaγan 150-9b(4531)

幹歌歹 𑰃𑰆𑰄𑰚 Ógedei qaγan 269(11119)

中合罕 阿巴中合 qaxan abay-a 275(11415)

中合罕 阿中合 qaxan aq-a 273(11314)

中合罕 安荅 qaxan anda 200(7509)

中合罕 額赤格 qaxan ečige 255(10510)

額遭中合罕 ejen qaxan

中合木渾 中合罕 qamuγ-un qaxan 53-33a(1112) 이다.

사료에 의하면 신라어의 “角干각간, 伊伐滄 이벌찬, 舒不邯서불한”이 동등(同等)한 관명(官名)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이상 세 관명(官名)을 동일하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伊 伐 滄 一 云 角 干 或 云 舒 不 邯
이 벌 찬 일 운 각 간 혹 운 서 불 한
yī-fá,fā-cān,sūn-yī-yún-jiǎo,jué-gān,gàn-huò-yún-shū-bù-hán

중세몽골어와 현대몽골문어에도 이상과 뜻 그리고 형태상 통하는 관명(官名)이 존재 한다.

필자가 위문을 견주어 보고 "角干 각간"과 몽골어의 "ᠠᠶᠠᠨ qaxan хаан"을 같다고 주장하고(다음 글을 참조), "伊伐滄 이벌찬"과 몽골어의 "ᠡᠪᠡᠳᠡᠨ eberten, эвэртэн"이 상등(相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뉴안스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 몽골인들이 높은 직위의 사람을 "ᠡᠪᠡᠳᠡᠨ eberten, эвэртэн" (ᠲᠦᠭᠦᠷᠠᠶᠢᠲᠠᠨ туурайтан, туурайтан)라고 호칭(呼稱)하며 몽골어의 또 "舒不邯 서불한"의 뜻과 q~h~s 의 어음 대응(對應)법칙에 대한 상식(常識)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몽골비사에서의 "ᠠᠪᠤᠯᠬᠠᠨ qabulqan, хабулхан"에 대한 아래와 같은

中合 木 黑 忙 中豁 里 中合 不 勒 中合 中罕 麓 顛 阿 巴
합 목 흑 망 활 리 합 불 합 한 멀 전 아 파
hé,gě-mù^{-hāi}-máng-huō,huá,huò-lǐ-hé,gě-bù^{-lè}-hé,gě-hǎn-miè-diān-ā,à,ē-bā

(Хамаг монголыг Хабулхан мэдэн аба1-52-1)란 기사(記事)에 입각하여 저자는 "舒不邯 서불한"과 "ᠠᠪᠤᠯᠬᠠᠨ qabulqan, хабулхан"을 상대(相對)하고 있다. 그리고 외면상 몽골어의 "ᠡᠪᠡᠳᠡᠨ jebeten, зэвтэн", "ᠳᠠᠶᠢᠴᠢᠩ dayicing, дайчин", "ᠵᠢᠪᠡᠷᠲᠡᠨ jiberiten, живэртэн" 과 대비(對比)할 수 있는 "通滄 잡찬,大阿滄 대아찬, 級伐滄 지벌찬" 등 관직명이 더러 있으나 역사적 기록이 없는 이유로 이번에 해석(解析) 없이 그냥 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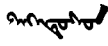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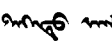
➤ 신라어의 太大角干 태대각간

신라의 17 개 관직 이외에 특수 두개의 관직이 있었는데 그의 하나가 "太大角干 태대각간, tài-dà,dài jiǎo,jué-gān,gàn" 이다. "角干 각간"이 몽골어의 "ᠠᠶᠠᠨ qaxan, хаан"과 같다고 명증(明證)한 바가 있으며 "太大태대"가 의미, 형태와 발음상 중세몽골어의 "ᠳᠡᠭᠡᠳᠦ degedú, дээд"(몽골비사에 de'ere)과 대등(對等)한 관계속에 있다고 봐진다. 이상 두 개의 단어를 합친 신라어의 "太大角干 태대각간"이란 형태인 "ᠳᠡᠭᠡᠳᠦ ᠠᠶᠠᠨ degedú qaxan, дээд хаан"이란 표현이 몽골어에 그대로 존재하며 “太大角干 태대각간”을 “舒發翰 Shū-fā-hàn, 서발한”, “舒弗邯 Shū-fú-hàn, 서불한”과 동일하다는 역사적 설명이 삼국사기(三國史記 Sān-guó-shǐ-jì,1958.pp.681)에 있다. 그리고 몽골어의 "ᠳᠡᠭᠡᠳᠦ degedú дээд"과 동등(同等)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고구려(高句麗) 관명(官名) 구성에도 있다. 예를 들면:



太大對盧 태대대로

太大兄 태대형

太大夫使者 태대부사자 이며 그중 "太大對盧 태대대로"가 몽골어의 ᠳᠡᠭᠡᠳᠦ ᠠᠶᠠᠨ

degedú ten(gūn), дээд тэри(гүүн)과 "太大兄 태대형"이 몽골어의  degedúsūn, дээдэс, дээдэһэн 아니면  degedú aq-a, дээд ах와 상등(相等)할 가능성이 높다.

➤ 신라어의 闕漢井과 娥利英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闕英井이란 이름이 나온다. 마감井 이 "우물 정 [jǐng  qudduγ, худаг]"이다. 가로막을 闕 알[è,yān]과 꽃부리 영 [yīng]으로 구성된 것으로 봐서 闕英이 신라 단어의 한자 전사이며 우물 이름이 분명하다. 필자가, 알영(闕英)을 몽골 수명(水名), 지명(地名), 인명(人名) 및 인격(人格)에 잇달아 맞게 쓰이며 몽골비사에 "Ariγ, Ari'un" (Ариг Усун, Ариун) 형태를 띠고 나오며 "깨끗하다, 순수(純粹)하다, 마음과 성질이 고분고분하다"의 뜻을 갖는 몽골어의  Ariγun, Ариун"과 상관개념(相關概念)이라고 본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이상 闕英 우물 이름을 "아리영" (娥利英)이라고 쓰고 闕英井作娥利英井라고 해석한 것이 필자의 주장을 확정해 주는 필기 사실이다.

➤ 신라어의 次次雄. 차차웅

12 세기의 유명한 사학자인 김부식(金富軾 Jīn-fù-shì, Ким Бүшиг)이 1145 년에 저작(著作)한 삼국사기(三國史記, Sān-guó-shǐ-jì, Гурван улсы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1958. pp.78)에 다음과 같이 썼다 ↓


新羅王稱居西干者一次次雄者一麻立干者四. 日左漢中國史書也...匈奴語“撐梨孤塗”
等今記新羅事其存方言亦宜矣.


新	羅	王	稱	居	西	干	者	一
신	라	왕	칭	거	서	간	자	일
xīn-luó-wáng,wàng-chēng,chèn-jū-xī-gān,gàn-zhě-yī								
次	次	雄	者	一				
차	차	웅	자	일				
cì-cì-xióng-zhě-yī								
麻	立	干	者	四				
마	립	간	자	사				
má,mā-lì-gān,gàn-zhě-sì 이다.								


필자가 여기에 나오는 차차웅(次次雄, cì-cì-xióng)의 어음구성과 “충명하다, 현명하다, 영리하다”란 뜻을 고려하여 몽골어의 Сэцэн,  sečen / Цэцэн,  sečen 과 연관(聯關)된다고 주장(主張)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Sān-guó-shǐ-jì, Гурван улсы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1958. pp.6)에서의

次次雄云慈充
차차웅은자충


cì-cì-xióng-yún-cí-chōng 이란 기록과 도발어(Тоба 어)에서의 “Чжичжэнь”(цэцэн)이 이상 설을 덧입증한다. 이것은 귀인(貴人)의 옛 칭호(稱號)이며 몽골비사에 인명 뒤에


Сэцэн,  sečen(薛禪 xuē-chán,shàn, 8-201-26)


Тумбинай Сэцэн,  sečen(薛禪 xuē-chán,shàn, 1-47-2)


Хойлдар Сэцэн,  sečen(薛禪 xuē-chán,shàn, 6-171-3)

Тумбинай Сэцэний,  sečen-ü(薛禪訥 xuē-chán,shàn-nè, 1-48-1)


Дэ Сэцэний,  sečen-ü(薛禪訥 xuē-chán,shàn-nè, 2-94-1)

Хойлдар Сэцэний,  sečen-ü(薛禪訥 xuē-chán,shàn-nè, 6-185-26)

Дэ Сэцэнийг,  sečen-i (薛禪泥 xuē-chán, shàn-ní, ni, 1-61-5)

Дэ Сэцэнээ,  sečen-e (薛禪捏 xuē-chán, shàn-niē, 2-69-2) 란 형태로 각각 수록된 실례(實例)가 있음을 참조(參照)하시기 바란다.

➤ 신라어의 麻立干 마립간

이상 인용(引用)한 김부식(金富軾 Jīn-fù-shì, Ким Бүшиг)의 기록에 있는 마립간(麻立干, má, mā-li-gān, gān)의 음성구성과 기타 언어학적 사용 사항을 고려하여 몽골어의 Мэргэн,  mergen (통찰력(通察力) 있는; 영특(英特)한; 명궁(名弓), 명궁수(名弓手); 점 잘치는)과 관련된 (關聯)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고려사 (고려사 1-6, 57)에 “신라 때는 님금을 마립간이라 하고 ...”란 기록이 있으며 기타 한국문헌에


訥祗麻立干 Nè-zhī	má, mā-li-gān, gān,	눌지 마립간,
慈悲麻立干 Cí-bēi	má, mā-li-gān, gān,	자비 마립간,
炤知麻立干 Zhào, zhāo-zhī	má, mā-li-gān, gān,	소지 마립간,
智證麻立干 Zhì-zhèng	má, mā-li-gān, gān,	지증 마립간이


각각 기사되어 있으며


몽골비사에


Мэргэн,  mergen (篋兒干 miè-ér-gān, gān, 2-74-3)


Хоричар Мэргэн,  mergen (篋兒干 miè-ér-gān, gān, 1-2-1)


Боржигидай Мэргэн,  mergen (篋兒干 miè-ér-gān, gān, 1-3-1)


Добун Мэргэн,  mergen (篋兒干 miè-ér-gān, gān, 1-3-4)


Хорилардай Мэргэн,  mergen (篋兒干 miè-ér-gān, gān, 1-9-1)

Мэргэнд,  mergen-dür (篋兒干途兒 miè-ér-gān, gān-tú-ér, 1-10-1)

Мэргэний,  mergen-ü (篋兒干訥 miè-ér-gān, gān-nè, 1-2-2)


Мэргэнийг,  mergen-i (篋兒格泥 miè-ér-gé, gē-ní, ni, 1-17-1)




Мэргэнээ,  mergen-e (篋兒干捏 miè-ér-gān, gān-niē, 1-8-3)

Мэргэнээс,  mergen-eče (篋兒格捏扯 miè-ér-gé, gē-niē-chě, 1-18-1) 란

형태로 각각 전사(轉寫)한 실례(實例)가 있음을 참고(參考)하시기 바란다.

➤ 몽골비사의 [捏]兀訥里^楊 와 한국어의 "누리"

몽골비사에 [捏]兀訥里^楊 란 단어가 한번만 나온다(1-4-1). 학자들이 로마자로 ne'ürid 라고 전사하고 뜻을 몽골어의 ne'ü- ( negükü, нүүх, 이동移動하다, 이사移徙하다)로 해석하곤 한다. 필자가 이것을 고대몽골어와 한국어 즉 알타이 어족(語族)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理由)는:

- 마감에 아래첨자로 쓰여진^楊 는 복수토이며 문제는 [捏]兀訥里 에 있다.
- 捏兀訥里^楊의 번역이 단지 程 단위 정 [chéng - 길이의 단위, 도량형의 계량기, 법, 법도]이며 몽골비사에서의 "이동移動하다, 이사移徙하다"의 번역과는 차이가 엄청나다. 즉 몽골비사에 "이동移動하다, 이사移徙하다" 를 纏兀惕坤 ( · нүүдкүн, нүүгтүн, 2-72-1), 纏兀耶 ( : нүүе, 3-118-3) 纏兀訥命 ( нүүрүүн, 3-118-3, 8-208-13)라 번역했다.
- 몽골비사에 都蛙鎖中豁兒莽來敦荅中合黑察你都禿中忽兒班捏兀訥里^楊

Duwa-Soqor mañlai dunda yaγča nidütü yurban negürid

ᠳᠤᠪᠠ ᠰᠣᠬᠣᠷ ᠮᠠᠨᠯᠠᠢ ᠳᠤᠨᠳ ᠭᠠᠭᠴᠢ ᠨᠦᠳᠡᠲ ᠭᠤᠷᠪᠠᠨ ᠨᠦᠭᠦᠷᠢᠳ

Дува Сохор манлай дунд гагц нүдэт гурван нүүрид

ᠳᠤᠪᠠ ᠰᠣᠬᠣᠷ ᠮᠠᠨᠯᠠᠢ ᠳᠤᠨᠳ ᠭᠠᠭᠴᠢ ᠨᠦᠳᠡᠲ ᠭᠤᠷᠪᠠᠨ ᠨᠦᠭᠦᠷᠢᠳ

γažar-a qaraqū būlēge

ᠭᠠᠵᠠᠷᠠ ᠬᠠᠷᠠᠬᠤ ᠪᠦᠯᠡᠭᠡ

газараа харах бөлгөө 라고 기사되어 있다.

- 이상이 원본이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마 가운데 눈 하나를 가지고 있는 전설적 특별 존재(存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몽골 전설, 옛'설화, 영웅서사시에 나오는 일목(一目 yī-mù) 존재 이야기와 몽골비사에서의 글귀를 종합해 보면 捏兀^{ᠨᠡᠭᠦᠷᠢᠳ} (negürid, ^{ᠨᠦᠭᠦᠷᠢᠳ}· нүүрид) 을 옛 한국어에 "세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누리", 현대 한국어의 "한 누리", "은 누리" 표현에 현존(現存) 사용되고 있는 "누리"와 연관(聯關)이 생존(生存) 유지(維持)되며 어원적으로 같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몽골어의 ^{ᠨᠡᠭᠦᠷᠢᠳ} negüri, 한국어의 "누리"가 약간 의미와 발음 차이는 있으나 알타이 어족의 공통어에 속한다는 향의(向意)다.